

비르지니는 한 마리 새처럼 가볍게 그의 곁을 빠져나갔고, 폴은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다네.

그런 와중에 마르그리트는 라 투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지.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게 어때요? 내 아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깊은 연정을 품고 있어요. 자연이 말을 걸어왔을진대, 우리가 아무리 감시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죄다 걱정투성이네요.”

그러면 라 투르 부인이 대답했네.

“아들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가난하기도 해요. 분명 키울 힘도 없을 텐데, 비르지니가 그런 불행에 빠질 아이들을 낳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당신네 흑인 노예 도맹그는 몸이 아주 망가졌고, 마리는 허약해요. 나는 어찌죠, 사랑하는 내 친구, 벌써 15년도 더 전부터 나는 이 몸이 너무 약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는 순식간에 늙어버리게 마련인데, 더군다나 슬픔 속에서라면 훨씬 더 빨리 늙을 수밖에 없죠. 폴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나이가 차서 그 아이의 성품이 잘 무르익을 때까지, 일을 해서 우리를 부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날그날 필요한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잠시 동안